



기획 연재

孝와 烈에 관한 瞑想 ⑧

權 五 焄
편집인

272. 범장사우范張死友
범식范式은 한漢나라 때 금향金鄉 사람으로 자는 거경巨卿이고 소시에 태학太學에 들어가 여남汝南 사람 장소張翕와 배우고 노닐며 벗이 되었다. 장소는 자가 원백元伯인데 두 사람이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고별하게 되었다. 범식이 장소에게 말하기를 ‘이태 뒤에 반드시 지나다 들러 그대의 존친尊親을 배알하리라’ 하여 서로 그 날짜를 정해 기약하였다.
2년 뒤 그 기약한 날이 되자 범식이 잔치 음식을 갖추게 청해 놓고 기다리니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2년 동안이나 천리길로 이별해 있으면서 전에 맺은 언약을 어찌 서로 믿고 반드시 살피겠느냐’ 하니 범식이 대답하기를 ‘거경은 신의 있는 선비라 결코 어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어머니가 ‘정녕 그러하다면 술을 빚어야 마땅하겠다’ 하였다. 그 날짜가 되자 범식이 과연 나타나 이르렀다.
뒤에 장소가 질환이 위독해지자 탄식하면서 ‘나의 사우死友 범거경范巨卿을 보지 못하는 게 한이다’ 하고 이윽고 죽었다. 범식의 꿈에 홀연히 장소가 나타나 말하기를 ‘거경, 내가 아무날 죽어 아무 시에 장사를 지낼 텐데 그대가 나를 잊지 않고 있지만 무슨 수로 서로 미칠 수 있으리오’ 하였다. 범식이 문득 치달려 가 이르니 상사가 이미 발인發輓을 하여 장지의 광중壙中에 이르렀는데 영구靈柩가 즐겨 움직이지를 아니하였다. 그 모친이 그 관을 어루만지며 ‘원백아, 무슨 기다릴 게 있어 그러느냐’ 하고 운구를 멈추게 하였다. 이윽고 흰 수레에 백마로 달려오며 호곡하는 소리가 나니 그 어머니가 ‘이는 필시 거경이로다’ 하였다.
과연 범식이 와 영구를 두드려 울며 ‘가실지어다, 원백이여! 죽고 삶이 서로 길이 다르니 이로써 좇아 영결하리로다’ 하고 인하여 영구를 당기니 비로

소 관이 움직였다. 마침내 범식은 무덤의 막차幕次에 머물며 묘역을 다스리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돌아갔다.
제목 범장사우范張死友는 범식范式과 장소張翕가 생사를 같이하는 벗이라는 뜻이다. 범식은 동한東漢, 즉 후한의 산양山陽의 금향 사람으로 일명은 범범范汜이고 고을의 과거 무재茂才로 등과하여 형주자사荊州刺史를 거쳐 여강태수廬江太守로 옮기면서 위명威名이 있었고 관직에 있으면서 죽었다. 이같은 범식과 장소의 사우死友 관계 일화는 후한서後漢書에 실려 있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천리상기이재여千里相期二載餘 : 천리 밖에 서로 2년 후 만나기로 하여
안청당상견화거眼靑堂上見華 : 당상의 화사한 모친 반가운 눈빛 뵈오며
수상공진부춘색壽觴共進浮春色 : 현수의 잔 함께 올리며 봄빛을 부양하니
시희오아어불하始喜吾兒語不虛 : 비로소 우리 아들 빈말 아니한다 기뻐하네
백마치래시거경白馬馳來是巨卿 : 백마를 타고 달려오는 이 바로 범거경이라
몽중상감역정녕夢中相感亦丁寧 : 꿈속에서 감응한 것이 또한 정녕인데
반호영결구환진攀號永訣柩還進 : 더위잡아 호곡으로 영결하매 영구도 나아가니
성신응통지하령誠信應通地下靈 : 성실한 신의 마땅히 지하에도 통하도다
273. 장예홀고張裔恤孤
장예張裔는 중국 삼국시대 촉한蜀漢의 촉군蜀郡 사람인데 황제 선주先主가 파군태수巴郡太守를 삼았다. 그가 젊은 시절에 양공楊恭과 더불어 좋은 벗사귀를 하였는데 양공이 일찍 죽으니 그 유자녀가 몇 살이 안된 어린 것들이었다. 이를 거두어 맞아다 함께 머

물게 하고는 집을 나누어 거처케 하고 양공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 같이 섬겼다. 양공의 자식이 자라 성인이 되자 아내를 얻게 하고 전답과 집을 사주어서는 산업을 하여 그 문호門戶를 세우게 하였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소결금란저의장少結金蘭著意長 : 소시에 맺은 금란의 벗 의미 심장하여
사생수이의하망死生雖異義何忘 : 생과 사 비록 달라도 의리 어찌 잊을손가
무고장모개여기撫孤將母皆如己 : 고아를 어루만지고 그 어머니 모시기를 소생과 같이 하여
경치전장사주장竟置田莊使主張 : 마침내 전답과 집을 장만해서는 이를 주장케 하였네
우도유래귀불투友道由來貴不 : 벗사귀의 도리 귀한 유래는 변치를 않는 것
장공신의숙능주張公信義孰能 : 장공의 굳은 신의 누가 짝할 것인가
세간복우번운자世間覆雨淪雲者 : 세간에서 인심이 손바닥 뒤집듯 변하는 자
견차영무괴한류見此寧無愧汗流 : 이를 보고 어찌 땀을 흘리지 않으랴
금란金蘭은 쇠와 난초를 말하는데 사람이 합심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와 같고 그 향기로움이 난초와 같다는 뜻으로 봉우간朋友間的 두터운 정의를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극히 친밀한 사귀를 금란지교金蘭之交라 하고 그러한 벗을 금란지우金蘭之友라 한다.
제목 장예홀고張裔恤孤는 장예가 고아를 구휼하였다는 뜻이다. 장예는 촉蜀의 성도成都 사람으로 자는 군사君嗣이고 공양고公羊高的 춘추春秋를 배워 익혔으며 서사書史에 박통博通하였다. 촉한을 세운 소열황제昭烈皇帝 유비劉備를 선주先主라 했는데 이 유비가 익주益州를 평정하고 그를 태수太守로 삼았다. 그가 고을에 이르자 옹개雍鏐라는 사람이 그를 결박하여 적국 오룻나라에 보냈다. 이에 제갈량諸葛亮이 등에鄧艾를 오나라에 보내 외교적으로 청하여 장예가 돌아오게 하였다. 장예는 돌아와 참군參軍과 서부사署府事 등을 거쳐 보한장군輔漢將軍에 이르렀다. 소시에 양공楊恭의 어머니를 양모養母처럼 섬긴 일로 당시 사람들이 그 의리를 중히 여겼고 사적이 삼국지三國志에 실린 인물이다.
274. 도종심시道琮尋屍

나도종羅道琮은 당唐나라 때 포주蒲州 사람인데 성품이 강개慷慨하여 절의를 숭상하였다. 당 태종太宗의 정관貞觀(627 649) 말년에 상소를 하였다가 임금의 뜻에 거슬려 먼 영남嶺南 지방으로 귀양을 갔다. 함께 내침을 받아 가던 사람이 형양荊襄 사이에서 죽게 되어 울며 고하기를 ‘인생이 다 죽음을 맞거니와 내가 홀로 여기에서 죽어 다른 땅에 뼈를 버릴손가’ 하였다. 이에 나도종이 ‘내가 만약 돌아가게 되거든 끝내 그대로 하여금 여기에 홀로 있게 두지 않겠다’ 하고 그 시신을 거두어 길옆에 묻었다.
한 해 남짓이 되어 나도종이 사함을 받아 돌아오게 되었는데 도중에 마침 장마가 크게 저서 물이 불어나니 그 빈장殯葬했던 곳을 잃어 어딘지 알 수가 없었다. 나도종이 들판의 물결 가운데서 통곡을 하는데 홀연히 한 곳에서 물결이 끊는 듯하였다. 나도종이 ‘만약 시신이 예 있거든 다시한번 끊으라’ 하고 비니 물이 마침내 다시 솟구치는지라 그곳에서 그 사람의 시신을 찾아내 수습해 짊어지고는 고향으로 돌아와 묻어주었다.
요즘도 사람이 타처에 나가 죽으면 그 시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 화장이든 매장이든 장사를 지내주고자 갖은 노력을 기울인다. 옛적에는 죽은 사람의 시신을 산 사람의 몸보다 더 무겁게 예우하였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천애동적공신산天涯同謫共辛酸 : 하늘 끝으로 함께 귀양가 고초를 한가지로 하다가
위골수방체자산委骨殊方涕自漣 : 뼈를 타향에 묻으려니 눈물이 절로 흐르네
진중임종맹약재珍重臨終盟約在 : 보배로이 무거운 것 임중에 한 맹약이라
장신하인독생환將身何忍獨生還 : 내어찌 차마 홀로 살아 돌아가리오
계서사여요상기鷄書似與鴨相期 : 계서로 맺은 것 장마와 더불어 기약함 같아
초장강변실소지草葬江邊失所之 : 강가의 풀밭에 묻은 곳을 잃어버렸네
일편단성천감응一片丹誠天感應 : 한 조각 붉은 정성이 하늘을 감응시켰으니
파중분비기인위波中惝沸豈人爲 : 물결 속에서 끓어 용솟음 어찌 사람의 짓이라
계서鷄書는 옛 서체의 하나이기도 한

자동차 · 화재 · 건강등 어떤 보험이든 하나만 들으시면

安東權氏宗報 陵洞春秋 구독회비는 무료로 됩니다!

국내 모든 보험회사의 온갖 상품을

일가분의 선호에 맞춰 완벽히 설계해 드립니다!

안동권씨증보사 종합보험 대리점

대표권병일

서울종로구필운동285-5 파크뷰타워 807호 02)723-4480전송 02)738-8935011-289-1747

우리는라이프사이클변화에따른체계적보상과자유로운선택의맞춤설계형보험으로일가고객모든분께만족을드립니다!

실속있는맞춤선택에서충분한보상까지어떤보험상품이각자에게필요할까, 섬세한컨설팅을통해고객별로최적의맞춤형보험을만들어드립니다!